



[라이프] 반값 메리트 편의점 점포간 택배 '대박' 니



Life

[바이오] 3년만에 열리는 '유일한상' 수상자에 김주주 교수 L2



연희궁 옆 작은 동산, 주민들이 사랑하는 '산림 휴식터'로

되살아나는 서울

서대문구 '공동 근린공원'

서울 서대문구에는 공과 인연이 깊은 공원이 하나 있다. 공동 근린공원이다. 이름의 유래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대문구에는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머물렀던 연희궁 앞에 자리한 탓에 '궁뜰'로 불리던 마을이 있었다. 서울역 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궁뜰은 궁동, 궁말, 정자말, 정자말, 정자동으로도 일컬어졌다. 이에 공동 근린공원의 명칭은 과거 이곳의 마을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희시범아파트서 공원으로 재탄생

서대문구는 연희동 산118번지 일대에 있던 연희시범아파트 10개동을 허물고 산지형 근린공원과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2010년 10월 일반에 개방했다.

지난 9일 오후 공동 근린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4번 출구로 나와 서대문04번 버스를 타고 9개 정류장을 이동해 '공동 근린공원입구' 정거장에서 하차하면 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이날 마을버스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앞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공동 근린공원을 가리키며 "저 산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연희동 뒷산이여"라고 답했다.

공동 근린공원은 하늘 위에서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 귀가 달린 부분에는 공동산 정상과 정자가 위치했고, 코 부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광장, 전망데크, 휴게시설 공간, 암석원, 산책로, 육각정자, 운동시설, 실내체육관이 차례로 들어섰다.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공동산 산줄기는 안산 서쪽으로 서대문구청을 감싸고 모래내 남쪽으로 연해 최대 104.3m 높이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104고지 지맥 남쪽에 옛 연희궁이 표기돼 있다. 공동공원과 연결한 104고지는 인천상륙작전 직후 서울수복을 위한 격전지로 잘 알려졌다. 성산회관 뒷길로 50m가량을 올라가면 '해병대104고지전적비'라고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서대문구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공동 근린공원 진입광장에서 출발해 서대문구 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었다. 초록색 솔잎이 달린 소나무들이 공원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았다. 푸른빛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내뿜는 쾌청한 솔잎향은 계절감을 상실케 만들었다.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홀로 푸릇푸릇한 소나무는 마치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20대 청년 같았다.

산책로 곳곳에는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전망대가 설치됐다. 전망대에 서면 서대문구 연희동뿐만 아니라 북아현



연희궁 앞에 자리해 '공동' 이름 붙여 연희시범아파트 허물고 근린공원으로 산책로·전망대·실내체육관 등 조성

전망대 오르면 서울시내 전경 한눈에 훑어볼 수 있어 부담 없는 산책로 도심 속 주민들에 산림 휴식 공간 제공

동 너머 중구 중림동·회현동, 용산구 용산동까지의 서울시내 전경을 한눈에 다 내려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미세먼지가 걷히자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서울타워'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산타워는 우주로 발사되길 기다리는 달 탐사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 꼴뿔이 서 있었다.

◆체력단련 장소로 제격

전망대에서 서울시내 경치를 감상한 후 등산을 하기 위해 공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을 오르는 내내 까마귀가 '까악, 까악, 까악' 울어대며 머리 위를 맴돌았다. 영역을 침범했다고 여겨 시끄러운 소리로 불쾌함을 표현하는 듯했다. 새 소음이 잦아든 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바람이 버건디색 손바닥 모양의 잎이 풍성하게 달린 나무를 흔들며 대자 단풍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파도 소리를 냈다. 산에서 들려오는 바닷소리에 귀를 쫓긋 기울이며 등산을 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나무 계단이 촘촘하게 설치돼서 인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도 부담 없이 산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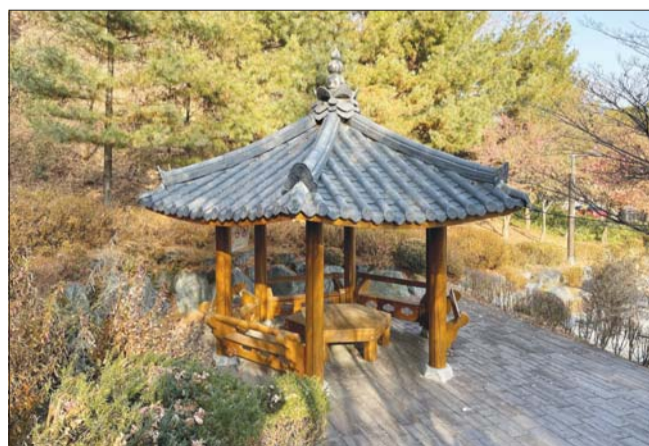
지난 9일 오후 찾은 공동 근린공원 내 산책로와 공동산체육관. /김현정 기자

산 정상에는 정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은 없고 누군가가 열심히 바닥을 훑치고 간 흔적이 돋보이는 새카만 걸레가 나무바닥을 나뒹굴었다.

정자의 양 기둥에는 타원형과 직사각형 모양의 거울이 걸려 있었다. 과거 산을 올랐을 때 정상에 정자가 설치된 곳에는 어김없이 거울과 함께 홀라후프가 각각 1개씩 놓여 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서대문구는 "도심 가운데 위치한 공동산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해왔다"며 "오래전부터 공동산 둘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등산로가 지금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좋은 산책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정자.



공동 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공동 근린공원 옆에 있는 서대문구 자활센터.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박항서 베트남, 신태용 인니 꺾고 미쓰비시컵 결승 진출
▲국내 심판 5명, FIFA 여자월드컵 배정...역대 최다 인원 /사진 뉴시스

▲이강철 WBC감독 "호주 리그 약하지만, 방심 안돼"
▲'2701호 논란'에 입연 축구협회...“뉘어두지 않을 것”



▲김주형 골프 세계랭킹 14위...10위 도약 보인다 /사진 뉴시스
▲“전세계 수련생 1억명”...반크, 태권도 영문사이트 개설